

내가 본 한살림선언과 한살림운동

한살림운동의 지표로 정리된 '한살림 선언'이 발표된 지 2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발표 당시 한살림선언은 앞선 시대정신으로 생명운동의 눈을 뜨게 하고, 지금껏 한살림운동에 방향을 제시해왔습니다.

한편, 급변해온 시대와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상황 속에 한살림운동이 놓여 있습니다. 한살림운동이 뿌리를 다지면서도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본을 살펴보는 성찰의 자세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한살림 선언으로부터 한살림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방향을 찾아가는 <한살림 선언 '의미 찾기'>, 지난 6월 이남곡 선생님, 7월 김종철 선생님이 이어 세 번째 자리를 마련합니다. 환경과 생태, 생명평화의 삶을 주창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온 젊은(?) 언론, 지역 활동가와 연구자 세 분을 모시고, 한살림운동에 대한 기대와 아쉬움, 따끔한 지적과 연대의 충고 말씀 청해 들으려합니다.

한살림, 생명평화운동 안팎의 관심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 주제 : 내가 본 한살림선언과 한살림운동

□ 발표 :

- 장성익 (환경과생명 주간)
- 이영이 (광명YMCA 총무)
-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 일시 : 2008년 11월 18일(화) 오후 3시 ~ 6시

□ 장소 : 장충동 한살림 5층 교육장 '살림터'

내가 본 한살림 선언과 한살림 운동

장 성 익 (환경과생명 주간)

1. 한살림 선언에 대하여: ‘의미 찾기’ 를 넘어 ‘다시 쓰기’ 로?

한살림 선언의 역사적 의미

이번 기회에 한살림 선언을 다시 읽어 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깊은 울림을 안겨 주는 것은 아무런 변함도 없었다. 선언은 이 세상과 우리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그 모든 위기의 본질과 고통의 핵심을 명쾌하게 규명하는 동시에, 생명의 철학, 생명의 사상, 생명의 과학을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근원적인 문명의 전환을 촉구함으로써, 처음 발표된 지 20년이나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각성과 통찰로 이끄는 우리 사회 생명 운동의 선구적인 길잡이이자 방향타로 생생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실로 한살림 선언은 우리 현대사에서 최초로, 바깥으로부터 수입·이식된 서구식 발전 모델과 근대적 세계관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산업 문명의 총체적 전환과 새로운 생명 가치에 기초한 문명의 개혁을 천명한 기념비적인 문헌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선언이 발표된 1989년은 안으로는 87년 6월 항쟁을 기폭제로 한 도도한 민주화의 물줄기가 뜨겁게 분출하는 한편으로, 오랜 개발 독재 체제 하에서 강행된 맹목적 경제성장의 결과로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대중 소비사회로 막 진입하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밖으로는 옛소련과 동유럽 등 현실 사회주의권 붕괴와 냉전 체제 해체가 시작되고, 그 이전부터 조짐을 보이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화의 먹구름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하던 시점이었다.

그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격류 속에서 발표된 한살림 선언은 시대를 앞서가는 선지자의 경고이자 예언자의 외침이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특히 운동권의 다수가 마르크스주의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던 당시 상황에서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산업 문명이라는 동일한 비판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 그러니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히 기술과 기계로써 인간과 자연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전체주의적 산업 문명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갈파하면서 기존의 ‘진보’에 대해 전면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은 — 신선하고도 놀라운 충격이었다.

그로부터 어언 20년이 흘렀다. 시대도 변했고 사람도 변했다. 감동과 깨달음을 넘어 한살림 선언에 대한 새로운 독해와 창조적인 의미 찾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혹은 더 나아가, 기존의 한살림 선언은 ‘한살림’이라는 조직과 우리 사회 생명

운동을 정초한 역사적인 문헌으로 소중하게 기억하고 보존하되, 선언 자체를 실제로 새롭게, 다시 작성하는 작업의 시도까지도 고려해 볼만한 시점이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작업을 통해 그간 진행된 시대 변화와 새롭게 제기되는 도전들을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동시에, 생명 운동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일구어온 다채로운 이론적·실천적 성과들을 총괄적으로 모아내고 정리하는 일이 긴요하다는 문제의식이다. 그리고 만약에 한살림이 이처럼 우리 사회와 이 시대를 향해 ‘제2의 한살림 선언’을 내놓게 된다면 그것은 격동하는 21세기에 펼쳐가야 할 그 모든 생명 운동과 대안적 구상을 새롭게 정초하고 집대성하는, 또한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와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새롭게 밝혀주는 소중한 이정표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대 변화와 격동하는 현실

그렇다면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뀐 것은 무엇일까? 내가 보기에 그 핵심은 고통과 절망이 더욱 깊어졌다는 점이다. 이는 곧 생태·사회·인간의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해 총체적인 생명 파괴와 재앙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을 뜻한다.

날로 전면화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 가속화되는 생태 파괴, 치명적인 농업·농촌의 붕괴와 지역 공동체의 해체, 광우병·조류독감 등과 같은 새로운 질병의 출현과 아토피·천식 등과 같은 환경 질환의 창궐, 유전자 조작과 생명공학 등의 질주로 인한 생명 질서의 교란과 파괴, 전쟁·테러·종교적 근본주의 등과 같은 폭력의 만연, 식량 위기와 고유가 사태 등 에너지 위기의 심화, 자본의 독재와 시장 전체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전면화와 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황금 만능주의와 물신주의의 범람,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승자 독식 및 약자 배제 사회의 도래, 실업과 비정규직과 (신)빈곤의 보편화, 민주주의와 공공성과 사회정의의 심각한 후퇴 등을 그 세목으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경우, 그 사이에 이른바 ‘민주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민주화의 일정한 진전 등에서 보듯 표면적이고 부분적으로나마 새로운 희망의 물꼬를 찾아나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정치·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이 급속도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광풍에 따라 재편되면서 세상의 황폐화가 더욱 극심해지고 삶의 위기 또한 한층 깊어졌다. 시대착오적인 토건 국가, 토건 자본주의로의 전략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이후 경제 성장과 개발 지상주의의 깃발 아래 이런 문제들이 더욱 가속도로 악화되는 동시에, 그간 피와 땀과 눈물로 일구어온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역진하는 현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촛불 항쟁은, 물론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촉발된 것이지만, 큰 틀에서 볼 때 이러한 현실을 반전시키고자 하는 희망과 의지가 극적으로

분출된 일대 사건이었다. 촛불 항쟁이 이런저런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냈고, 구체적이고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데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길게 볼 때 ‘촛불’의 경험은 우리 사회의 전환과 변혁을 위한 새로운 동력과 지혜와 용기를 끊임없이 공급해주는 또 하나의 역사적 원천이 될 것이다.

한편으로, 미국발 금융 위기와 이로 인해 촉발된 세계적 경제 위기는 그간 온 세상을 호령하던 투기적 금융 자본 중심의 시장 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일정 정도 제동을 걸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에 미약하게나마 파열을 일으키고 있다. 물론 자본주의는 지금까지 여러 계기를 통해 끊임없는 자기수정과 자기갱신을 통해 생존과 변화를 계속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세계 금융 시스템이나 맹목적인 신자유주의 일변도 체제의 부분적인 교정 등과 같은 나름의 돌파구를 찾아 제 갈 길을 계속 갈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자연과 인간의 삶을 체계적이고 압축적으로 말살하면서 성장해온, 그리고 탐욕·부패·낭비·폭력·파괴 따위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현대 자본주의 산업문명에 근원적으로 내장돼 있는 위험성과 불안정성, 그리고 파국성과 자멸성의 한 자락을 내보인 측면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종말이야 아니겠지만 일정한 변곡점 정도의 계기는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의 경제 위기 사태는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성장과 발전의 방식, 삶의 방식이 과연 지속 가능하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금과는 다른 대안적 사회와 경제,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 혹은 모색을 어느 정도 추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상황이 많은 이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강요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기적 생존 투쟁과 양극화, 사회의 정글화와 황폐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그럴수록, 물론 하기 나름에 달린 것이긴 하지만, 역설적으로 새로운 희망과 반전의 실마리를 제공해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금은 절망과 재앙이 깊어가는 속에서 새로운 위기와 기회, 새로운 절망과 희망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미묘한 시점이다.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급격히 변화하면서 요동치는 현실의 본질과 진상을 새롭게 규명하면서 생명 운동과 대안 운동이 나아갈 바와 관련한 원칙, 방향, 전망, 기본 내용 등을 제시해주는 새로운 희망과 전진의 이정표가 절실하게 요청된다. 제2의 한살림 선언 운운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있다.

생명평화 운동의 총괄과 새로운 모색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 잘 알다시피, 이처럼 절망과 고통이 깊어지는 속에서도 우리는 아주 다채로운 생명 운동, 대안 운동의 확산과 심화를 경험해 왔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운동, 생협 운동, 경향 각지의 지역 공동체 운동과 생태마을 운동, 농

업·농촌 회생과 유기농 운동, 도시 농업과 귀농 운동,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각 종교에서 펼쳐지는 생명평화 운동, 교육·의료·복지·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친 각 지역에서의 풀뿌리 자치 운동,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운동, 대안 언론 운동, 대안주거 및 생태건축 운동, 대안 에너지 운동, 대안기술 운동, 지역화폐·공정무역·마이크로크레디트·사회적 경제 등 대안 경제 운동, ‘녹색 일자리’ 등 환경복지 운동, 초록정치 운동, 영성 수련 운동, 평화운동 단체들의 활동, 여성 운동, 대안 문화 운동, 동성애자·병역거부자·이주노동자 등의 소수자 운동 등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운동들은 대체로 개별적이고 자족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탓에 통합적인 전망과 논리, 전략 등을 공유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또한 이런 새로운 모색과 움직임들을 서로 연결하여 더욱 풍성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런 얘기를 꼭 부정적인 뜻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각 운동들은 저마다 고유한 개성과 지향, 내적 논리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 각 운동의 정체성 확보와 발전에 필수적이며, 나아가 이런 것들이 모여 생명평화 운동 전체를 살찌우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동시에, 그간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되어온 생명 운동과 대안 운동의 풍요로운 성과들을 총괄하면서, 이 운동들 각각에 담긴 다양한 문제의식과 지향, 담론과 논리, 상상력과 실험정신, 실천적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한 깨달음, 대중과의 접점 등을 생명평화 운동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재정리하고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긴요한 작업이다. 이것은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오늘날 절실히 요구되는 각 운동들의 유기적인 연대와 협력과 결집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제2의 한살림 선언 운운하는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이다.

다시 말하거나 급변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하고 생명평화 운동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제2의 한살림 선언, 21세기의 새로운 생명평화 선언을 만들자는 것은 실제로 선언을 다시 한 번 작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포함하는 것이긴 하되, 핵심은 바로 그러한 문제의식과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생명평화 운동의 그간의 전개 과정을 종합적으로 결산·평가하면서 급변하는 21세기 현실에 걸맞은 대안적 모색과 구상을 좀 더 새롭게 가다듬어 보자는 것이다.

그 실제적인 결과물이 무엇이든 이러한 작업을 다양한 주체와 단위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좀 더 조직적이고 민주적이고 대중적인 공부·토론·합의의 형태로 진행된다면 생명평화 운동의 발전과 성숙, 결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생명평화의 대의를 사회적으로 더욱 널리 알리고 대중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경제 중심 담론이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오늘의 뒤틀린 현실에서 환경·생태·생명 담론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이를 이른바 ‘생명학’의 체계적인 구상으로 모아내는 한편으로, 모든 운동의 핵심적 무대인 담론 투쟁, 곧 언어의 싸움이라는 장에서 생명평화 진영의 든든한 진지를 구축하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한살림 운동에 대하여: 생명평화 운동의 구심점과 매개체가 되자

한살림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을 찾아서

한살림은 우리 사회 생명평화 운동, 대안 운동의 선구자이자 만형이라고 할 수 있다. 급속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회원이 십 수만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위상과 규모에 걸맞은 사회적 존재감이 그리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아는 사람들이야 잘 알지만, 평범한 일반 시민들 중에 한살림을 ‘운동’ 과 연관 지어 떠올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듯싶다.

물론 이것은 일차적으로 한살림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다시 말해, 한살림의 활동 내용과 방식이 다른 일반적인 운동 단체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한살림이 담론 차원에서나 실천 차원에서나 우리 사회 생명평화 운동과 대안 운동의 구심점이자 매개체이자 수원지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또한 이런 일을 해내기에 한살림만 한 곳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살림이 이런 쪽의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격동하는 현실과 날로 깊어가는 위기 속에서 이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생명평화 운동과 대안 운동을 추동하고 매개하고 조정·조율하고 네트워킹하고 결집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하고, 또 그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러한 큰 줄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사회를 향한 발언과 영향력의 강화

무엇보다 한살림의 담론 생산, 의제 설정, 전망과 대안 제시 능력의 획기적 강화와 이에 기초한 대사회적 발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한살림은 시대와 세상을 향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생명평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그것을 공세적으로 쟁점화·공론화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기획 기능과 교육·홍보 기능의 대폭 확대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이것은 사회 전체를 향해서도 그렇고, 생명평화 운동 진영에 대해서도 그렇고, 한살림 조직 내부를 향해서도 그렇다. 이런 맥락에서 한살림 회원들에 대한 교육 활동의 강화, 생명평화 운동 진영의 공부와 토론의 조직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생명평화 운동 전반을 네트워킹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의 발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대중 교육기관의 운영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울러 여타 운동들과의 연대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여타 운동이라 함은 좁은 의미의 생명평화 운동을 넘어 우리가 일반적

으로 얘기하는 환경 운동, 녹색 운동, 대안 운동 전반을 뜻한다. 나아가 논쟁의 소지가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지역과 사안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과 단위에서 노동운동 등 기존의 전통적인 민중운동, 진보운동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환경 운동과 사회 운동 전반에 한살림이 주창하는 생명평화의 가치, ‘모심’ 과 ‘살림’ 의 대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전파·확산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특히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짐에 따라 다양한 운동 역량의 통 큰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협동과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다음으로, 한살림 활동의 핵심인 유기농 직거래를 통한 생활 협동 운동 혹은 생활 공동체 운동과 관련해 보다 새롭고도 창의적인 ‘관계’ 와 ‘소통’ 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협동과 공동체의 새로운 개념 정립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최근 유기농 직거래를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도 직결된 사안으로서, 이 변화의 핵심은 한마디로 유기농의 상품화·상업화·시장화 현상이 아닐까 싶다. 이를 소비와 생산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비의 측면. 유기농 공동체 운동은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최근 유기 농산물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유기 농산물의 상업화·상품화가 진행되면서 물건만이 오고가는 ‘거래’ 혹은 ‘교환’ 이 너무 부각되는 느낌이 든다. 생산자와 소비자, 농촌과 도시가 서로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공유하기보다는 단순한 생산자/소비자 관계로 변질되는 조짐은 없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직거래의 주도권이랄지 균형추가 지나치게 소비자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여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유기농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생태적 이상이나 농(農)을 근거로 하는 생명 가치가 탈색되는 것은 문제라고 여겨진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유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간 대 인간의 만남, 공동체적 소속감과 정체성 등이 약화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생산의 측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유기농이 갈수록 제도화·상업화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다. ‘인증제도’ 를 통해 품질을 보증하는 까닭에 유기농이 규격화되고 기계적인 틀에 얽매이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들도 ‘생명과 자연을 살리는 일꾼’ 이라는 유기농 본연의 의식보다는 유기농을 농산물 수입 개방에 맞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돌파구로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그렇다고 해서 인증제도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 또한 유기농 간에 갈수록 경쟁이 격화됨으로써 생산자들에게도 경제적·경영적 압박이 가중되는 현실도 간과하기 어렵다. 아울러 전체 유기 농산물 시장 가운데 곡물류, 채소류 등을 비롯한 1차 생산물에 비해 2·3차 가공품이나 육류 등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 사업

을 하지 않는 수많은 생산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한살림은 진정한 협동과 공동체를 위한 운동적·담론적 대안을 모색하고 실천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런저런 주장을 펼치는 자료들을 몇몇 접해 보았지만 ‘아,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귀에 쏙 들어오는 논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풀어 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아마도 생산(자)과 소비(자), 도시와 농촌, 정착과 유목, 개인과 공동체, 시장의 교환·상품경제와 협동·호혜의 신뢰 경제, 인터넷과 ‘대면적(face-to-face) 직접 만남’ 등과 같은 기존의 기계적인 이분법을 넘어서는 데서 이 논의는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살림의 주체를 새롭게 세우는 동시에 한살림의 정체성을 새롭게 일구어 나가는 작업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및 지역 공동체 운동의 재구성

다음으로, 새로운 지역 공동체 창조와 지역의 재구성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살림이 그간 중점을 두어온 농촌·농업의 재생과 부활뿐만 아니라, 도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현실에서 도시까지를 포함한 자치와 자율의 지역 공동체 운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에 대한 보다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역은 단순히 자연 생태계와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다. 생태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 교육, 복지, 의료 등 그야말로 삶의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하나로 어우러지는 ‘생명의 장’ 그 자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평화도, 진정한 변혁과 민주주의도 그 궁극적인 출발점과 종착점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차원을 넘어 지역의 전일적인 재구성이 중요하고, 이런 관점에서 기존의 지역 공동체 운동에 대한 성찰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중요한 것은 원론적인 주장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최대한 완성도가 높은 모범사례를 현실에서 만들어내고 이를 확산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지역 공동체 운동과 관련해 홍성, 괴산, 무주, 강화도, 지리산 인근 등이 주목받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대중적 전파력과 영향력, 그리고 사회적 공신력과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곳들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단위 정도,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단위에서도 이런 모범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등 ‘관’ 과의 거버넌스와 제도 정치 쪽의 역할이 중요해지므로 지방 선거 등의 국

면에서 시민사회 진영의 적극적 개입과 관여가 요구될 것인데, 이럴 경우 그간의 여러 경험을 볼 때 논란의 소지도 많고 복잡한 논의 과정이 필수적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나 입장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생명평화 운동을 포함한 시민사회 내부의 토론과 합의를 전제로 하되, 이런 관점에서 전략 지역을 선정해 운동 역량을 집중하고 장기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경제 위기의 충격파와 대응 과제

한편으로,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충격파와 관련해 한마디만 하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세계적 경제 위기 사태로 인해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사회는 더욱 커다란 고통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그 와중에 복지 제도와 사회 안전망이 턱없이 부실한 우리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빈곤층을 비롯한 중산층 이하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고단해질 전망이다. 이럴 경우 혹시 한살림 활동의 중산층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그리하여 혹시 먹고살 만한 사람들의 활동이라는 편견이 강해지지 않을까? 이것은 한살림 회원의 계급·계층적 구성 차원을 넘어 한살림 운동이 견지해야 할 생명 운동 본연의 민중성과 변혁성이 약화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에서 깊이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주부들이야말로 한살림 활동의 아주 중요한 주체인데, 이들 주부들이 가중되는 경제난과 사교육비 등 생활고 부담으로 생계 전선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간과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은 한살림에게는 불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목에서 일하는 여성들, 취업한 주부들과 한살림과의 만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과제로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촛불 집회에서 보았듯이 새로운 변화의 주체로 떠오른 10대와 젊은 층들, 인터넷 세대 등과의 접점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도 생각거리의 하나다. 새로운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무장한 이들을 끌어들이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데 경제 위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 또한 앞서도 말했듯이, 기회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정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더 망하기 전에 새로운 대안을 찾아보자, 삶의 전환을 고민해 보자는 쪽으로 관심의 물길을 유도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우병 사태, 멜라민 사태 등에서 보듯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고, 식량 위기 또한 날로 깊어갈 것이다. 한살림의 보다 지혜롭고도 공세적인 노력이 필요한 까닭이다.

최근 거대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서 불미스런 사태가 터졌다. 오래 전부터 여기저기서 경고음을 발해 왔음에도 철저한 성찰과 뼈를 깎는 자기혁신을 게을리한 결과다.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권력의 공안적 탄압과 이데올로기 공세가 극심해

지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런 일을 거치면서 일반 국민들이 시민사회운동 전반을 어떻게 볼지가 두렵다. 척박한 우리 사회에 생명평화 운동의 씨앗을 처음 뿌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온 한살림이 이런 난국 속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또 열어가 주길 바란다면 지나친 욕심일까? ●

한살림 선언의 의미 찾기

이 영 이 (광명YMCA 총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마디 하라 했을 때 주제넘은 일이라 생각들어 못한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왔으니 몇가지 저의 생각을 나누고 가겠습니다. 아직 한살림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잠깐씩 스쳐가는 모양만 보고 하는 말이니 사실과는 다른 엉뚱한 말도 있을 것입니다. 감안하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신 한살림선언을 읽어 보았습니다. 그전에 한살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간단했는데 책이더라구요. 생각보다 장문의 글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한두 장으로 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장장 86p에 달하는 양을 읽으려니 한참을 보아야 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생협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운동에 대한 철학적 정리를 바탕으로 시작된 한살림이 생협운동의 중심이고 만형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증거물이 선언이지 않을까요. 선언이 1989년에 만들어졌는데 선언의 실천적 의미는 90년대 초에 많이 희석된 것 같아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한살림의 이념과 실천방향이라는 한살림선언이 20년이 지났다고 새롭게 써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현실에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텐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역한살림에서는 한살림선언이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부산한살림이 한살림선언을 요약해서 게시해 놓은 걸 보고 놀랐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언이라는 것이 선언으로 끝나면 안된다, 선언은 그 뒤에 이어지는 실천이 있을 때 선언이 된다고 봅니다. 한살림이 어떤 방향을 갖고 실천할 지 정하고 열심히 그걸 향해서 가면 되는데 선언 해 놓고 그거 꼭 그렇게 해야 하냐고 자꾸 재해석 하려하면 오히려 안좋은 거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한살림 20년사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소비자 협동조합관악사무소라는 현판을 찍은 사진을 보고 과연 한살림이구나 감동받았습니다. 또 20년 역사 속에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했던 장면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공동체운동, 생협운동이 겪었을 것이고 제가 소속된 광명y에서도 늘 원칙과 이상 사이에서 우왕좌왕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그재그하면서 가다보면 결국 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재해석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요.

한살림선언은 선언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언어에서, 삶에서 묻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선언은 관념이나 문구로 재해석 될 일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서 생활에서,

언어에서 방식에서 재해석되며 깊어져야겠지요. 특히 저는 물품이라는 용어가 선언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용어로 바뀌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한살림의 정신을 담을 수 있는 말인지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명의 원리인 관계성을 회복하는 일도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관계성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데는 규모가 중요하다 보는데 한살림은 2천-3천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기준은 어떻게 세워졌나도 궁금해 집니다.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한살림이 그리는 마을, 지역이 어떤 모습일까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살림은 지부, 지소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그리면서 지부를 독립하기도 하고 지역활동가들이 운영하는 형태의 매장도 시도했지만 결국 중앙조직에 통합되는 지부개념인 것 같습니다. 중앙집중성이 강한 조직형태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의 원리는 중앙집중과는 배치되는 것 같은데 한살림은 지역, 지부, 지소가 자치성을 갖고 운영하려 했다가 안되면 다시 중앙집중으로 바꾸는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명운동, 협동운동, 공동체 운동이 한살림선언의 주제라고 할 때 한살림의 회원들이 한살림이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디. 마을은 한살림 회원들의 마을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사는 공간일텐데 그 마을안에서 한살림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요? 우리가 꿈꾸는 동네, 협동하는 마을은 지금 살고 있는 자리에서 실현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마을모임에서도 다루어지는 내용이 물품에 대한 시식, 평가등이 주를 이룬다면 마을은 더 이상 한살림마을을 넘어서기 어렵겠지요.

한살림 역사에서 상징적인 사건이 부여 강수옥 생산자의 딸기밭 사건이지요. 공짜로 실컷 따가라고 했더니 욕심에 손바닥이 빨갛게, 딸기가 짓무를 정도로 된 도시회원들에게 성한 딸기를 한박스씩 선물하시는 장면입니다. 그후로 물품을 받으면 생산자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떠올려진다고 했는데 지금도 한살림 회원들이 물품뒤에 있는 생산자의 논밭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엄청난 물류규모를 갖고 있고 시스템화 되어 있는 구조는 얼굴과 얼굴이 보이는 관계를 내포하는 생협만의 관계망을 잃어버린지 좀 되었지요. 한살림의 경쟁상대는 누구일까요? 만일 대자본이 하는 유기농시장에서 한살림이 잠식될까봐 한살림만의 유통시스템, 한살림물품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관계망을 상실한 물품은 더 이상 한살림이 아닐 것이고 관계망이 없는 사람들 또한 한살림이 아닐 것입니다. 관계와 규모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작은 단위로 사람들이, 물품이 소통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할 때 생명원리의 핵심인 관계성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11월 1일 저희 집 앞에 있는 광명실내체육관에서 있었던 한살림 가을걷이 한마당에 갔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매우 큰 행사였습니다. 규모에 놀랐고 한살림의 도시회원들이 함께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놀랐습니다. 마치

유기농직거래판매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한살림 일년 행사 중 가장 큰 잔치일거라는
예상이 되는데 그 많은 회원들은 어디에 계신걸까, 여기 오셨다면 광명시민들처럼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만 계신걸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오
늘 그 답을 들을 수 있겠지요?

한살림이 우리사회에서 갖고 있는 의미는 누구보다 한살림에 계신 분들이 잘 알
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생명운동을 이념이 아닌 현실에서 생활공동체 속에서 담
아가고자 애쓰는 모습, 자칫 생활운동이 놓치기 쉬운 지향과 원칙을 잃지 않으려
모심과 살림연구소를 세웠지요. 저희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법씨학교 아이
들도 밥과 명상을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한살림과 생태적 대안 발전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

한살림 선언

- 생명, 생태 담론의 시작
- 1990년대 이후 넓은 의미의 환경 시대의 철학적 기초
- 반공해운동-> (주류) 환경운동
- 생명운동 -> 생명평화운동, 공동체운동
생태적 대안운동, 생활협동운동

가치

- 자본주의=산업주의=국가주의의 극복
- 생명-생태-평화-살림-협동-지역-자치
-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시장 안에서 시장을 극복하는 이중전략”

“호혜와 협동의 공동체복지”

활동

- 생활, 생산을 통한 생활, 문화 전환
- 협동운동
- 유기농산물 생산, 소비, 직거래
- 기업 아닌 기업?
- 지역농업
- 문명전환운동

발전 원인

-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
- 소득 증대
- 사회적 자본(신뢰)의 축적
- 현실주의적 문제해결 능력

평가

- 생명을 살리는 호혜적 협동의 성공모델 vs. 건강을 위한 중간층을 위한 운동/사업
- 시장을 넘어서는가?
- 협동조합의 민주적 거버넌스?
- 산업주의를 극복하는가?
- 국가복지를 넘어서는가?
- 자본=산업=국가 vs 신뢰-자연-공동체

사회구조

- 사회구조의 두 가지 모습

국가	국 가
시 장	시 장
사 회	사 회
자 연	자 연

대안적 발전모델 1

- 산업 패러다임 지배 유형

산업주의적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지배적인 사회 패러다임

*구도완, 여형범, “대안적 발전: 생태적 공동체와 어소시에이션을 넘어서”(『경제와 사회』 2008 여름)

	국가중심	반 국가중심
경제 중심	국가 사회 주의	자유주의
사회 중심	복지국가 자본주의	리버테리안 사회 주의

대안적 발전모델 2

- 생태 패러다임 지배 유형

생태위기와 생태적 한계를 중시하는 탈산업주의 패러다임

	국가중심	반 국가중심
반 생태 민주주의 (반 사회)	생태 권위 주의	자유주의적 환경관리 주의
생태 민주주의 (친 사회)	복지국가 생태주의	생태 공동체/ 어소시에이션주의

대안적 발전모델 3

- 생태 권위주의: 신 맬서스주의
 - 국가에 맡겨라!
- 자유주의적 환경관리주의: 신자유주의
 - 시장에 맡겨라!
- 복지국가 생태주의: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적 근대화
 - 생태적 복지국가에 맡겨라!
- 생태 공동체/어소시에이션주의:
 -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
 - 생태적 공동체와 시민사회에 맡겨라!

대안적 발전전략 0

- “생태 공동체/어소시에이션에 바탕을 둔 생태 복지국가 모델”

생태-사회 위기에 취약한 생물학적/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지식인/시민들이 생태적인 공동체/사회적 연합을 바탕으로 기존의 국가를 생태적 복지국가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영구평화를 지향하는 발전

1. 사회의 생태적 재구성
2. 시장의 생태적 관리/전환
3. 국가의 생태적 관리/전환

“대안적 발전모델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호혜, 연대, 협동의 사회경제”

대안적 발전전략 1: 사회의 생태적 전환

- “밑으로부터 생태적인 사회 만들기: 생태적 어소시에이션 운동”
 - 생태적 어소시에이션이란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유의지로 생태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결사/연합
- 생태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자연 속에서 사람들 사이의 연대와 우애를 확산시키는 열린 공동체 운동
 - 공동체 운동(농촌/도시)
 - 생활협동 운동(유기농, 의료, 교육 등)
 - 시민환경 운동

대안적 발전전략 2: 시장의 생태적 전환

- **시장으로부터의 철수**
 - 자금자족적 농업경제에 바탕을 둔 호혜적인 공동체
- **대안적(생태적) 시장 만들기**
 - 생활협동조합, 지역화폐, 사회적 기업 등
- **녹색 소비를 통한 시장 전환**
 - 생태적 의식/문화에 바탕을 둔 소비
- **국가를 통한 시장의 생태적 관리**
 - 소비자/시민운동을 통한 규제정책과 경제적 유인정책 등
 - 예) 생태적 세제 개혁
 - “자기조정적 시장을 생태적 한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생태적 균형 안에서 기능하도록 사회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

대안적 발전전략 3: 국가의 생태적 전환

- 형식: 공론장을 통한 영향의 정치 대 선거 정치
 - 내용
 - 억압적/폭력적 기능 줄이기
 - 환경파괴적 개발 기능 줄이기
 - 사회복지, 사회적 경제 지원 늘리기
 - 생태 보호/복원 기능 늘리기
 - 호혜/연대/생태의 문화/교육 지원 늘리기
 - 의사결정체계를 생태민주주의적으로 전환하기
 - 전쟁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 하위제국주의 체제에서 세계적인 생태적 발전 체제로 전환하기
-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생태적 한계 안에서 사회적 연대를 지원하는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 한살림 선언은 생명평화 담론의 기초이다.
- 한살림 운동은 생태적 협동운동의 모범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 생태적 공동체/어소시에이션에 바탕을 두고 국가와 시장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
- 한살림 운동은 국가/시장/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발전해야 한살림 선언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